

LDPE, 2월 톤당 110만원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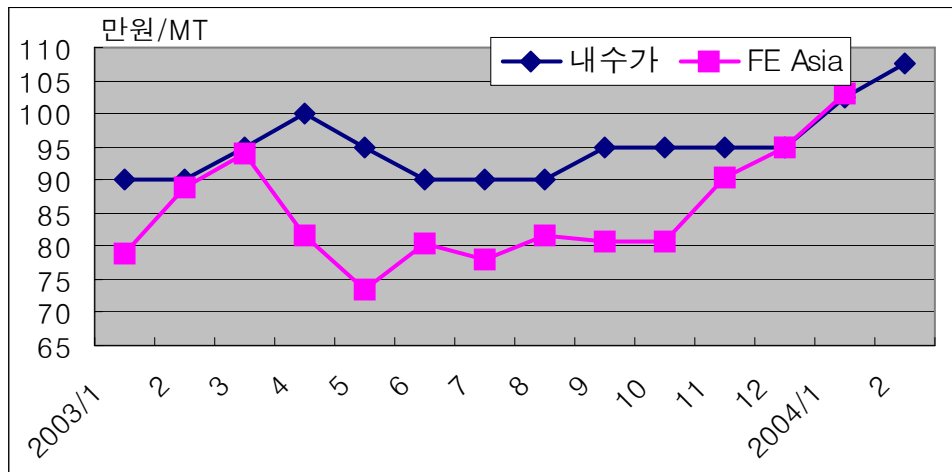
2004년 들어 15만원 상승 ... 수요기업도 가공제품 가격에 반영

LDPE(Low-Density Polyethylene)의 Film 그레이드 가격이 2월 톤당 110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LDPE 생산기업들은 2003년 하반기부터 충분한 가격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침체로 가격인상 시도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LDPE의 내수산업 붕괴가 궁극적으로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수요기업 보호차원에서 가격인상에 신중해왔다.

그러나 2004년 1월 원재료인 나프타(Naphtha)가 한때 380달러까지 폭등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틸렌(Ethylene) 가격이 1월 평균 671달러로 2003년에 비해 159달러(23%) 폭등해 2월 내수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LDPE 가격추이(2003)



PE 시장에서는 “2003년까지 폴리올레핀(Polyolefin)이 올레핀(Olefin) 가격강세를 부추겼으나, 2004년부터는 오히려 올레핀이 폴리올레핀 가격강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에틸렌 생산기업 및 무역상들은 HDPE(High-Density Polyolefin), LDPE의 가격강세가 국내·외 NCC의 플가동으로 이어져 에틸렌 수요증가로 가격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4년 1월 LDPE(Film 그레이드) 내수가격은 톤당 100만-105만원으로 2003년 12월 거래가격인 95만원에 비해 5만-10만원 인상됐으며, 2월 국내 LDPE 생산기업들은 톤당 5만-10만원을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고시해 내수가격이 톤당 110만원에 달해 2004년 들어 10만-15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LDPE는 2003년 하반기부터 내수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LDPE 생산기업들은 2004년 2월 LDPE(Film 그레이드) 수출가격이 톤당 8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2/06>